****

**누가 우리의 선생님입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from my youth) 교훈하셨으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시 71:17).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 "하나님이여 사람들을 어린 시절부터(from *the* youth) 교훈하셨으므로"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도 앞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서부터 다져진 신앙을 토대로, 청소년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와 세계 내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움직임에 대해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 젊은 선생님들은 누구입니까?*

랭글리 호이트의 신앙은 청소년 자원봉사자 (YAV)로서 일하면서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지난 27년 동안 청소년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은 인종 화합과 빈곤의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안점이 마태복음 25장 사역과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랭글리는 청소년 자원봉사 기간 동안, 미국장로교 공공정책 증인 사무소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미국장로교의 백인우월주의 유산, 특히 수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노예화한 것에 대해 연구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와 반흑인주의에 동참한 것을 인정하기 위해 교단은 많은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변화하기 위해서 더욱 많은 위험을 무릅써야 할 것입니다.",

랭글리는 더 공정한 세계를 위해 일하겠다는 목표하에 미국장로교 내의 안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랭글리는 선생님입니다.*

새미 한은 켄터키 주의 뉴 고셴에 있는 장로교회의 청소년부의 일원으로 예배를 계획하고 인도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단순히 성경 본문을 읽지 않고, 성경이 연극 대본인 것처럼 생각하고 연기를 했습니다"라고 새미가 말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더 새로운 세대를 위한 좀 더 효과적인 예배에 대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미가 바로 선생님입니다.*

트레이시 데이스는 DREAAM이라는 프로그램을 설립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소년들을 찾아 가르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족을 보살피기도 하고, 소년들이 5세에서 24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전염병 상황으로 인해 DREAAM은 어려움에 처했으나, 중요한 교훈을 얻기도 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전염병은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우선으로 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라고 그가 말했다. "그 일은 소년들과 그 가족들을 찾아가 가르치는 일, 그들이 삶을 구현하고 일하고 목표를 실현하며 활력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

*트레이시가 바로 선생님이며 DREAAMER들이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강림절 특별헌금은 교육 및 영적 교육 사역을 통해 우리의 젊은이들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성령강림절 특별헌금을 하게 되면, 40%는 교회로 배정되어 지역의 아동, 청소년을 돕는 사역을 지원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젊은이들은 인생과 신앙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또한 그들이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역시 뭔가를 배우게 됩니다. 관대하게 드리십시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보태면, 많은 것이 모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계절마다 당신의 모든 자녀를 통해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동, 청소년을 지원하는 우리의 헌금이 자라나서, 이들이 전 세계에 되돌려주는 선물이 되게 하소서.* ***아멘****.*